

# 헬스케어·보험 등... 반려동물 시장, 미래 먹거리로 '쑥쑥'

##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

에이아이포펫-NH농협은행 '맞손' 반려동물 라이프케어 서비스 제공 동화약품, 핏펫에 50억 전략투자 동물의약품 연구·개발 계획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면서 관련 국내 대기업들도 해당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 들고 있다.

과거엔 사료, 간식 등 반려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국한됐다면 최근엔 AI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서비스, 보험, 장례식장까지 활동범위가 대폭 늘어났다.

기업들은 반려동물 분야 관련 스타트업들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하는 게 목표다.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들이 인프라를 활용, 기업은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을 통한 제품 개발, 레퍼런스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사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기업간 협력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건강에 관심을 갖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KB경영연구소가 반려가구 1000곳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가장 큰 관심사'를 조사한 결과 55% 이상이 '건강관리'를 꼽았다.

정부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타트업 에이아이포펫은 지난 5월 NH농협은행과 반려동물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과 에이아이포펫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아이포펫



오태환 펫닥 대표(사진 왼쪽)와 손정엽 KT Device 사업본부 상무. /펫닥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왼쪽부터) 김성정 강릉시지원봉사센터장, 정연옥 대구시지원봉사센터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 하운철 연암대학교 교수, 김동훈 더프라이스 이사가 참석해 결의를 다지는 모습. /LG유플러스

농협은행은 에이아이포펫과 협력해 하반기 중 NH농협은행에서 AI기반 자가 건강체크, 수의사 상담, 원격진료 등을 포함하는 '반려동물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간 서비스 연계, 각 플랫폼 내 교차마케팅, 반려동물 신사업 등을 공동 추진한다.

앞서 에이아이포펫은 지난해 10월 삼성화재와도 제휴를 맺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을 통해 '티티케어'의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인 핏펫에 50억 원을 투자했다.

동화약품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핏펫

통신3사, 패스에 반려동물 정보 추가 SKT, AI 기반 동물영상 진단 보조 KT, 적정 사료량 측정해 비만관리 LGU+, 재난 상황 특화 구호소 운영

쿠광, '로켓펫닥터 2.0' 출시 건강 상태 맞는 영양관리 서비스

이 보유한 수십만 건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126년 전통의 의약품 개발 노하우와 대규모 의약품 제조 역량으로 동물의약품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핏펫은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간편

검사 서비스, 건강맞춤 커머스, 동물병원 찾기 등 다양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통신사들도 반려동물 사업에 적극적이다.

본업의 성격에 맞게 AI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먼저 통신 3사는 패스에서 반려동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반려동물 확인서비스에는 동물 등록번호와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 반려동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사용자에서 식별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표

시된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는 AI(인공지능) 기반 동물 영상 진단 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를 통해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분석, 수의사가 명확한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된다.

KT 반려견 서비스는 반려견의 적정 사료량을 측정해 비만 관리를 돕는다.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연 최대 130만원 가량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또 KT는 최근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의 운영사인 펫닥과 신규상품 사업을 위해 협력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재난 상황에서 유기·방치되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특화 구호소를 운영한다. 이밖에 LG유플러스는 반려동물 플랫폼인 '포동'의 반려견 성격 분석 DBTI(반려견 버전 MBTI) 등으로 관심을 모으며 이용자 50만 명을 확보했다.

또 쿠광은 반려동물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로켓펫닥터 2.0'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반려동물 케어 시장공략을 강화한다. 로켓펫닥터는 수의학·영양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맞는 사료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반려동물의 나이·체중·체형 등 프로필을 작성하고 건강체크 배변 상태·병원 진료 이력 등의 설문을 제출하면 수의사가 10분 이내로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건강 관리 리포트를 제공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더욱 커질 것. 기업들은 반려동물 사업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한 것. 이를 위해 반려동물 전문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개발, 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OECD, 韓 경제성장률 올해·내년 예측치 하향

G20·美 전망은 모두 상향 조정 韓 올해 GDP, 2.5% → 2.3% 내년 예측치, 2.2% →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모두 내려 잡았다. 이에 반해, 주요 20개국(G20) 협의체 및 미국 등에 대한 2024년·2025년 전망은 모두 상향 조정했다.

OECD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국 및 전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9월 전망)의 2.5%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내년 GDP 성장률 예측치는 기존 2.2%에서 2.1%로 0.1%p 하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와 내년 전망을 각각 0.3%p, 0.2%p 내린 2.2%, 2.0%로 제시한 바 있다.

OECD는 G20 협의체 평균에 대해서 각각 0.1%p, 0.2%p 올려 잡았다. 올해와 내년 모두 3.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전 세계 평균의 경우 올해는 기존의 3.2%를 유지했지만 내년은 0.1%p 올린 3.3% 예측치를 제시했다. 미국은 올해 2.6%에서 2.8%로 0.2%p 상향, 내년은 1.6%에서 2.4%로 0.8%p 올렸다. 일본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을 0.2%p 내렸으나 내년 수치는 0.1%p 올렸다.

OECD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이민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자녀양육의 기회비용과 노인 빈곤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해서 이민자 유입 등에 힘입어 견조한 속도의 성장을 예상했다. 일본은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른 민간 소비 및 투자 증가로 내년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美 달러화 강세... 외환보유액, 한 달 새 3억달러 줄어

한은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 지난 10월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억 달러 감소했다.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보유중인 다른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4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새 3억달러가 줄었다. 지난 10월(42억000만달러 감소)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했지만 미달러화 강세에 따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월 말 103.99에서 11월 말 106.05%로 약 2% 올랐다. 그 결과 유로화·파운드화 등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지난달 유로 가치는 2.8%, 파운드화 가치는 2.1% 하락했다. 호주달러화도 1.1% 내렸다.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2024년 10월 말 현재, 단위: 억달러)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국	32,611 (-533)	6	대만	5,768 (-11)
2	일본	12,390 (-159)	7	사우디 아라비아	4,347 (-222)
3	스위스	9,374 (-130)	8	홍콩	4,214 (-14)
4	인도	6,821 (-237)	9	한국	4,157 (-43)
5	러시아	6,316 (-22)	10	독일	3,970 (+104)

\* ( ) 내는 전월말 대비 증감액

/IMF, 각종 중앙은행 홈페이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

증권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외환보유액의 89.6%에 해당하는 3723억9000만달러를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어 예치금 191억3000만달러(4.6%), 특별인출권(SDR) 149억달러(3.6%), 금 47억9000만달러(1.2%), IMF포지션 41억9000만달러(1%)로 구성됐다.

한편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는 중국(3조2611억달러)이다. 이어 일본(1조2390억달러), 스위스(9374억달러), 인도(6821억달러), 러시아(6316억달러), 대만(5768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347억달러), 홍콩(4214억달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115@